

<b>민 지 실</b>	<b>음 혜 천</b>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및 인등기도 법회  
 2월 15 일 월요일 10 시 30 분 : 정초 칠일 기도 입재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정초 칠일 기도 회향 및 전법 기도 법회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신년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 - 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마음 곱지 못한 사람  
 사귀지 말고,  
 사악한 마음 가진 사람과  
 동행 하지 마라.  
 마음 고운 사람과 사귀고  
 마음 선한 사람과 동행 하라.

Have not for friends whose soul is ugly;  
 Go not with men who have an evil soul.  
 Have for friends those whose soul is  
 beautiful;  
 Go with men whose soul is goo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남북불교 “민족 공동이익 위해 협력”

### 부처님오신날 평양 광범사서 합동법회

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은 앞으로 북측지역 불교문화재 복원 보수 및 유지관리 협력사업 추진과 함께 2011년 팔만대장경 목판제작 1천년을 맞아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또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3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방북단의 성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기여해야한다"는 큰 틀 아래 남북 공동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하여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사업 추진 ▲2011년 팔만대장경 목판제작 1천년을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함께 평양을 다녀온 혜경스님은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과 평양시내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남북불교단체와 사찰들 간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평양 광범사나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봉행에 합의했으며, 6.15 선언 10돌을 맞아 금강산 합동법회나 남북 동시법회를 봉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포괄적합의와 함께 여러 개별 사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남북관계를 인간의 활발한 교류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다소 침체 됐던 남북불교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로 예정된 108 산사순례기도회의 금강산 신계사 순례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8 산사순례기도회는 3차에 걸쳐 4천여 명의 불자들이 신계사를 순례할 예정이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3일 중무간담회를 통해 추후 조계종의 남북교류 창구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선불교도련맹 이규룡 부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협력에 기여해야"

남측 대한불교조계종과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은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공동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계종과 조불련 간 합의사항-

1. 양측은 우리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하여 북측지역의 불교문화재 복원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 양측은 2011년 8만대장경 목판제작 1000년을 맞이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3. 양측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조계종과 조불련 간 논의된 사업-

1. 금강산 신계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지순례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 평양시내에 불교회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3. 남측사찰과 북측 주요사찰간의 결연을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한다.
4.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평양 광범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5.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맞이하여 금강산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또는 남측과 북측사찰에서 동시법회를 봉행하도록 노력한다.
6. 남측불교단체와 조불련간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첫 단독방북·단기성과보다 지속성 필요

### 조계종 대표단 방북 의미와 과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이다. 자승스님은 지난 30일 오전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조계종 대표단의 방북은 올해 들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고조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연내 성사 가능성 시사 발언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일에는 개성에서 올해 첫 남북공식회담인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린다. 서해상 긴장이 북측의 훈련 중단으로 가라앉고 남북 간 대화국면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천공항 출국에 앞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우리 방북이 경색된 국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간다”고 말했다.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방북이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승스님을 비롯한 방북단은 평양 체류기간동안 조선불교도련맹 대표단 회담, 평양 용화사, 법운암, 묘향산 보현사 등의 사찰을 순례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례상 초청자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올 것으로 보이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등은 확인 되지 않았다. 이번 방북에 동행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방북의 특성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을 북측이 잡아두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인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했었고, 전 원장인 지관스님도 두 차례 평양을 찾았다. 전직 총무원장의 세 번의 방북은 모두 ‘민족통일대축전’과 ‘6.15 선언 공동행사’ 참가단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자승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의 단독 방문이다. 대북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도 함께 방북하지만, 조계종 대표단의 평양에서의 일정은 조선불교도련맹과의 만남, 북한 사찰 순례 등 독자적인 일정이다. 남북불교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첫 불교계 대표단인 것이다. 이번 방북에는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사회부장 혜경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이 동행했다. 영담스님은 민간대북교류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임공동대표로, 그동안 수차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남북교류사업을 이끌어왔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대표단을 이끌고 직항 편으로 평양을 방문, 북측의 대표적인 제약연구소이자 의약품 생산공장인 정성의학종합센터에 종합포질관리실을 지원하고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준공하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조계종의 대북교류사업 책임자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조계종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불교교류의 전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역시 내년 개최되는 ‘대장경 1천년 세계문화축전’에 북측대표 초청과 북측이 소장하고 있는 대장경 영인본의 남한 전시를 추진하기 위해 동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이번 방북은 그간의 남북불교교류 성과를 정리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승스님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중단 4개년 발전계획’에서 “현재의 ‘남북불교 교류협력 발전단계’의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남북불교 공존과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를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인도적 지원과 기초적인 불교교류의 수준을 뛰어넘어 남과 북의 불교가 공존과 통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찰 복원도 금강산과 개성 같은 ‘특수지역’이 아닌 평양에서의 복원과 문화재 발굴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양 용화사는 창건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분단과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평양의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고 조선불교도련맹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던 곳이었다. 그런 면에서 용화사 복원 추진은 역사의 복원이 아닌 오늘의 북한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평양에 건립이 추진되는 인도적 지원시설은 불교문화회관을 포함한 단일진료과목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물품 지원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총무원은 밝혔다. 평양 시내에 불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자승스님의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남북사찰 교류협약’도 이번 방북 길에 논의된다. 역사적 연관성과 지리적 연관성 등을 파악해 남북 사찰간 상호 방문과 공동법회 등의 협력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역대 고승의 수행처가 되었던 남과 북의 사찰 간 교류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0년 단절의 벽을 시간을 두고 허물어야 하는 남북불교교류에서 이번 한 차례의 방북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자승스님이 선거 공약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밝힌대로 현재의 ‘남북불교 교류협력 발전단계’의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남북불교 공존과 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를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불교회관 건립이나 사찰 복원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쫓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불교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과 함께 통일 이후 한반도 불교 전체를 설계하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불교교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불교교류활동을 해온 장용철 진각복지재단 기획이사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 정상회담이 함께 거론되는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자승스님의 방북은 방북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하기 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안을 선정해 남북불교교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진효스님도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원장스님의 남다른 의지와 총무부장 영담스님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신계사 운영, 108 산사 순례 등 대북교류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세계종교의회 2009 멜버른대회 성료

세계종교의회 2009 멜버른대회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평화 환경과 빈곤 극복을 위한 다른 세계를 만들자-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지구를 치유하자’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세계 100여 개국의 228개 종교단체 대표 5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 각 종교단체 등의 개별 프로그램과 공동체의 밤(Community Night) 등이 펼쳐졌으며, 불교는 호주 베트남 사원인 광명사에서 세계 각국 불교 대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8일 오전에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인 진월스님과 이치란 위원의 주도로 ‘한국 간화선 소개와 실습’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일 열린 폐회식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특별연설이 진행됐다. 이날 연설에서 달라이 라마는 “오늘날 세계는 극도의 물질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 정신은 황폐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종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종교의회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불교, 개신교 등 여러 종교단체들이 참여해 인류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종교간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종교대회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 아이티 구호활동 종단차원서 전개

- 애도논평 발표...5만불 지원도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 참사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오늘(1월 15일) 애도논평을 발표하고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우선 자비나눔 긴급재해구호 기금에서 5만불을 아이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범종단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스님(기획실장)은 오늘 발표한 애도 논평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아이티 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담스님은 “우리 종단은 이번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아이티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종단 차원에서 전개하는 아이티 돕기 모금운동에 동참하려면 다음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다음은 아이티 지진 참사 애도문 전문.

아이티 지진 참사에 대한 애도문

지난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 이상의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아이티 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종단은 이번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적극 도울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아이티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계인들의 관심과 지원아래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합장

## 조계종 아이티 봉사단 2진 출국

- 2월 4일 현장 도착 예정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호 의료봉사단(단장 묘장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2진이 오늘(2월 2일) 오후 7시반 아이티로 출국한다.

봉사단 2진은 단장 묘장스님을 비롯해 김경옥 부단장 등 동국대병원 의료진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천공항을 출발한 봉사단 2진은 미국 뉴욕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쳐 오는 4일 오후 6시경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봉사단 2진은 지난 1월 30일 출국한 1진과 합류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현지 주민에 대한 응급치료, 전염병 예방, 수술 등 아이티 현지에서 의료진료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장 묘장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아이티 이재민들을 위해 마음을 내준 의료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단 1진은 2월 3일 오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델마 33 번지에 도착, 숙식장소 및 의료진료 활동 근거지 마련 등 봉사단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구촌공생회 1000 번째 우물 파다

- 캄보디아 앙꼬제이 마을서 기념식

1000 번째 우물이 캄보디아 앙꼬제이 제아심 고등학교에 뚫렸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140km 거리에 위치한 앙꼬제이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아침 7시 숙소를 떠난 버스는 11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2차선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지만 기초를 다지지 않아 울퉁불퉁한 흙길이 그대로 드러났다. 흙먼지가 한치 앞 시야까지 가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트럭으로 도로는 북새통을 이뤘다. 길 좌우에는 벼를 베고 난 논이 끝없이 펼쳐졌다. 길 가 웅덩이는 오리떼가 차지한 가운데 미역을 감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가축이 섞여있었다.

지난 11일 오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앙꼬제이 마을 제아심 고등학교는 정문부터 운동장 까지 캄보디아 국기와 태극기를 든 학생들로 가득찼다.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기증한 1000 번째 우물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한 학생들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지난 2004년부터 이 나라에 우물을 파서 기증하고 있다. 제아심 고등학교가 1000 번째 주인공이 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월주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전 중앙총회의원 일화스님,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스님, 제주 기원정사 주지 혜진스님 등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지구촌 공생회 홍보대사 텔런트 전원주 선우용녀 씨 등 한국에서 온 신도 30여명도 함께했다.

KBS,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취재에 나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캄보디아에서도 체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지구촌 공생회가 우물을 집중적으로 시추하는 두 지역 따케오주와 캄푹주의 스테이 벤, 코이 쿤 후올 주지사, 그리고 주 캄보디아 이경수 대사가 참석했다.

지구촌 공생회가 시추해 기증하는 우물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빈곤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여러 고통 중에서도 수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수도 프놈펜과 제 2 도시 시엠립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다. 대부분 주민들은 집 앞 웅덩이에서 길은 물을 그대로 마신다. 산이 거의 없는 지형 특성상 땀감을 구할 수 없어 물을 끓일 엄두를 못 낸다. 이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에 시달린다.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못할 정도로 단명하는 것도 물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깨끗한 물은 곧 생명이다.

<사진>우물이 없으면 웅덩이 물은 그대로 마셔야한다. 한 주민이 집앞 웅덩이에서 물을 담아 마시고 있다. 물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40을 넘기지 못한다.

월주스님은 2004년부터 캄보디아에 우물을 기증하기 시작했다. 우물 한 기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한화 70만원. 시추 후 먼지를 막기 위해 지붕을 덮어 씌우고 기증자 명패를 만드는 부대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캄보디아 공무원 월급이 10달러 인 점을 감안하면 캄보디아인들에게 70만원은 큰 돈이다.

지구촌 공생회는 그동안 남부 두 주 캄푹주에 515개, 따케오 주에 485개를 건립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를 비롯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네팔, 아프리카 케냐까지 7개국에서 구호사업을 전개중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우물 외에 크나이 공생초등학교, 따 벤 영화초등학교, 앙꼬제이 공생유치원, 꼬랑야오 공생유치원을 통한 교육사업 및 식수지원사업, 지붕개량, 도로정비, 결연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체아 소파라 농촌개발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공생회의 이같은 업적을 거론하며 “식수지원과 생활환경사업은 2025년 전 국민이 100%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동우물 지원사업을 펼치는 지구촌공생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월주스님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2005년부터 캄보디아의 캄푹주에서 식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8년 따케오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오늘에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의 환경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신 지구촌공생회 이사, 감사님들과 한국의 본부에서 모금과 홍보활동 등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해준 사무국 상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의 전근수 지부장 이하 부지부장, 피엠, 현지 활동가, 봉사자 여러분, 아울러 홍보대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1000여기의 우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라고 인사했다. 이경수 대사는 "지구촌 공생회의 우물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며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식수공급 확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간에 걸친 기념식은 1000 번째 우물 개봉식으로 막을 내렸다. 우물에는 기증자 이름과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날 1000 번째 기증자가 돼 행사에 참석한 송명례 보살(72, 경기도 화성)은 시종 눈물을 흘렸다. 송할머니는 "월주스님으로부터 지구촌공생회 사업 이야기를 듣고 우물 한 기 값을 냈는데 그 돈으로 판 우물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지 몰랐다"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65 세에 불교에 귀의한 송 할머니는 전 재산인 집을 판 돈을 전액 네팔 롬비니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데 기부했다. 기부 자리에서 공생회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우물 시추 비용을 냈는데 1000 번째를 기록했다.

1000 번째 우물을 새긴 제아심 고등학교와 같은 마을에는 공생유치원이 있다. 이 지역 5 개 유치원 중 최고시설을 자랑한다. 한국에서 온 신도들은 공생유치원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낸 후원금이 뜻 깊게 쓰이는 현장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돌아오는 길 가에는 지구촌공생회가 그동안 기증한 우물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우물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송명례 보살 처럼 김백호 회장 역시 자신이 보시한 돈으로 마련한 우물이 100 여명의 사람들 목숨을 살린다는 사실에 감동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100 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 이토록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우물로 인해 병이 짝 낫고 삶이 윤택해졌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김 회장은 그간 10 개 우물을 기증했다.

김 회장은 "스님들이 권유해서 시작했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몰랐다. 현장에서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우물 시추 작업을 현장에서 총 지휘 감독하는 전근수 공생회 캄보디아 지부장이 옆에서 "우물이 있기전에는 설사약 피부약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줄을 서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를 잡느라 야단이었는데 1 년이 지난 지금은 약이 창고에 쌓이고 피부병이 사라졌다.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 손자 손녀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죽게돼 여한이 없다며 울더라"는 일화를 소개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 우물을 기증한 단체 개인은 다양하다. 가장 많이 기증한 단체는 외교부 국제구호단체인 KOICA 로 300 기가 넘는다. 그 다음은 환경재단이 100 여기를 기증했다. 기업은 한국세로노가 눈에 띈다. 개인은 김백호 회장을 비롯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이 많았다. 최근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동참해 각각 991, 999 번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어머니를 위해 기증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1002 번째 우물의 주인공이 됐다.

일행을 태운 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우물 상태도 살펴보고 후원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던 지역에서는 개선점도 보였다. 김규환 홍보팀장은 "처음에 공동장소에 설치했는데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아 이후 개인 가정에서 설치하고 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1000 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신규 개발보다 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김 팀장은 "처음 팔 때는 음용검사를 통과했지만 중간에 못 쓰게 된 우물이 있다.

폐쇄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식수로 부족하면 허드렛일이나 끓여 쓰게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 주민들이 마실 수도 있어 과감하게 폐쇄토록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관리와 주민 교육 생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환팀장은 "우물 시추는 올해 까지 계속해 약 1500 기에서 멈추고 관리와 교육에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 이튿날에는 지난해 3 월 문을 연 영화 초등학교와 우물 시추 예정지를 방문했다. 우물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은 곧 천국과 지옥과 다름없었다. 품앗 주 콕무롱에서 만난 뽀사렛(50), 쌍스룬(48) 부부는 "딸셋 아들 둘이 있는데 우물이 생긴뒤 아주 좋아한다"며 우물이 아주 맛 있다는 '앙 드옹 떡 정안'을 거둬 외쳤다. 뽀사렛 씨는 "우물이 없을 때에는 1km 넘게 떨어진 절에 가서 길어 먹었으며 아이들이 늘 설사 배탈에 시달렸는데 짝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품 리웁 마을에서 만난 쏏 사렌(49, 여) 씨는 "할 수 없이 집 앞 우물 물을 마신다. 출가한 아이 둘과 손자 1 명이 있는데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한다"며 "우리마을에도 꼭 우물을 파 달라"고 하소연했다. 월주스님은 "처음 100 개를 과기로 했다가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해와 1000 개로 늘렸는데 아직도 요청하는 곳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일행은 끝으로 지난해 3 월 문을 연 따펜 영화초등학교를 방문, 아이들이 준비한 재롱을 보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마침 이곳에는 박정준 교수의 인솔아래 동국대 108 리더스회 학생들이 자원 봉사 중이었다. 박교수는 "2 주 일정으로 공생회가 건설한 학교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놀며 글과 무용 음악을 가르치는 한편 화장실 설치, 빗물 탱크 설치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텔런트 전원주씨는 "대학생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건강하게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기를 빌겠다"며 격려했다.

마땅한 식당이 없어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해결한 일행은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밤늦은 시각 프놈펜에 마련된 숙소로 도착했다. 떠나기 전 월주스님의 '법문'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와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숨을 쉬기 위하여 공기를 돈을 주고 산다거나 모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명은 인류의 발전과 행복, 개인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물을 공기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민족, 종교, 이념의 차이를 떠나 우리 인류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의무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탈레반, 고대불교유적 파괴 위협

#### 파키스탄 박물관측 “문화유산 훼손 우려”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대 불교 유산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0km 떨어진 소도시 택실라의 불교 유적지가 특히 주목된다. 기원전 5 세기부터 2 세기까지 불교 중심지로서 고고학 유산이 많이 분포된 곳이다. 최근 들어 탈레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곳의 문화유산 역시 포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20 곳 가량 진행되던 외국의 연구·개발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다.

탈레반의 위협에 대해 택실라의 박물관들은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은 결국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레반은 지난 2001 년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500 년 된 바미안석굴의 불상 2 개를 폭파해 파괴한 바 있다.

### BUDDHANARA TEMPLE (佛國寺) 경인년 정초 칠일 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4 년 (2010 년) 2 월 15 일 (음력 1 월 2 일)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4 년 (2010 년) 2 월 21 일 (음력 1 월 8 일) 까지 경인년 정초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1 월 21 일은 셋째주 일요일 전법기도 법회와 같이 봉행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정초 칠일 기도 동참비는 \$100.00 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자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Class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매달 2째주 일요일마다 갖는 애틀랜타 부다나라 정기법회 이외에도 신도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도님 집에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All Saints Church School Basement 에서 “Socially-engaged Buddhism”을 주제로 불교 포럼이 열립니다.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은 Addiction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불교적 지혜에 관해 발표 합니다. 포럼이 열리는 행사장 주소는 6419 Clemens, University City, MO 63130 입니다.
-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용맹정진과 수계식에는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하셔서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뜻을 새기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계식에는 미국 현지인 두분을 포함 모두 8분이 수계를 받아 새로운 부처님 제자들이 탄생 되었고, 이전에 수계를 받은 불자님들을 새로이 수계를 받는 수계 불자님들을 기쁨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계를 받은 수계자들은 수계도반들이니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줘서 서로가 힘이 되어 보람되고 알찬 인생들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 경인년 2010년 2월 15일 기도를 입재해서 2010년 21일 셋째주 일요일 기도 회향하는 정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2009년은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일이 보태져서 더욱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습니다. 신도님들 모두 힘들지만 기도와 정진의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힘으로 모든 위기들을 이겨 냈으면 합니다. 경인년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올해 부처님 오신날 일년 연등제작을 2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모두 202개의 일년등을 제작하는데 연등 색깔은 주황색 입니다. 연등 제작중 가장 힘이 드는 기초 단계인 연잎을 비비는 단계는 현재 모두 끝났습니다. 등살에 속지를 붙이는 작업은 정기 법회가 있는 2월 7일, 2월 21일, 3월 7일 점심 공양후에 있습니다. 연잎을 붙이는 작업은 주중에 있으니 봉사가 가능하신 신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봉사 일정을 조절해야 하므로 봉사 하실 신도님들은 사찰에 미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매달 3째 주 전법 기도 법회때 마다 새로운 불교 찬불가를 배웁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찬불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7번 임신생 김주호, 176번 신유생 명법행 유재원, 177번 병인생 광범 유현석, 219번 임신생 김일선, 223번 기해생 김정훈, 271번 계미생 이득진.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법당용 40인치 LCD TV 보시: 김정훈

법당용 피아노 보시 (\$ 2,467.00): 공덕행 김태희, 청정행 정혜주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